

# 커리어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2022-5호

##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면?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성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싶다면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나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진로 돋보기

#### 세대 차이는 필연적, 극복 노력은 필수적

이미 다른 세대인 자녀에게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선호 직업에 속하던 의사, 변호사가 이제는 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앱 개발자, 게임 기획자 등 새로운 직업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생활문화의 변화로 직업환경과 조건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직업관을 강요해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대화하거나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전문가들의 조언을 살펴본 뒤 그동안 해 왔던 자녀와의 대화를 점검해 봅시다.

- 참고①: [유튜브\(youtube.com\)](#) > EBSCulture&LIFE(EBSCO양)  
> 부모특강 - 0.1%의 비밀 -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001
- 참고②: [유튜브\(youtube.com\)](#) > EBSCulture&LIFE(EBSCO양)  
> 부모특강 - 0.1%의 비밀 -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002



### 진로 한 걸음 더

#### 강요하거나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건 그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을 좋아하는 자녀가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면, 부모는 대개 단순한 선망이 동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대하는 직업 중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니까 그렇겠지”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직업정보를 조사해서 알려 주거나 스스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진로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자녀 세대의 직업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세대의 직업관으로 자녀 '진로지도'해선 안돼>  
기사 보기 ▶



### 진로 Tip

자녀가 부모와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궁금하다면 커리어넷 직업가치관 검사를 해 봅시다. 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자녀와의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커리어넷\(career.go.kr\)](#) > 진로심리검사  
> 중·고등학생용 심리검사 > 직업가치관검사



### 진로 레시피

성향이 다른 자녀와 진로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직업흥미검사(H형)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서로 다른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처: [유튜브\(youtube.com\)](#)

>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 [진로 가이드] 진로심리검사를 활용한 자녀와의 소통방법





## 진로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를 나눠요

부모는 자녀가 무조건 꿈을 좇기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자녀는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꿈꾸다 보니 학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며 진로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 필요할 경우 자녀와 함께 커리어넷 진로상담 기능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받아 보고 아래의 활동지를 작성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봅시다.



### 진로갈등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봅시다

#### 안정성을 중시하는 부모 VS 꿈을 중시하는 자녀

Q

자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화가의 꿈을 꿈꿉니다. 반면, 자녀의 꿈도 좋지만 화가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직업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점점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A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선생님, 주변 사람들과 친구 간 의견 차이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해 가는 과정에서 자녀의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으므로 진로탐색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중학생 시기 자녀의 진로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진로를 대안으로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가치관과 잘 맞는 직업인지 파악하는 것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녀	원하는 진로	ex) 화가
	진로를 선택한 이유	ex) 자기계발, 도전성
	상담 후 느낀 점	
부모	상담 전 자녀에게 추천하는 진로	ex) 교사, 공무원
	추천하는 이유	ex) 안정성, 보수
	상담 후 느낀 점	ex) 자녀의 적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미술품 전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함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 상담보기 > 공개상담 사례

